

Daily Auto Check

2022. 7. 13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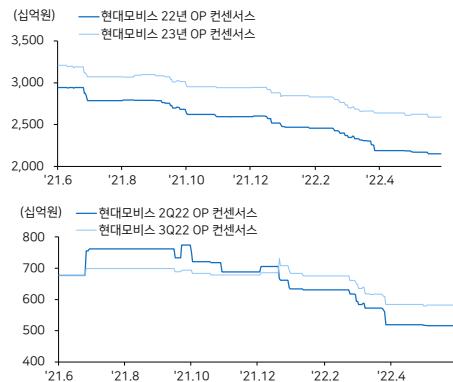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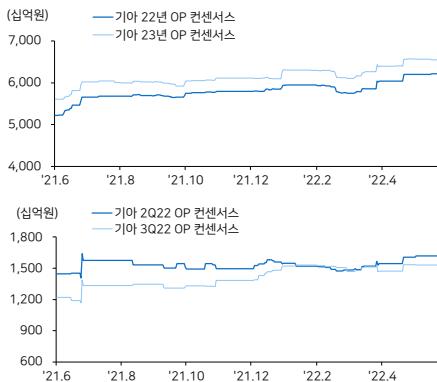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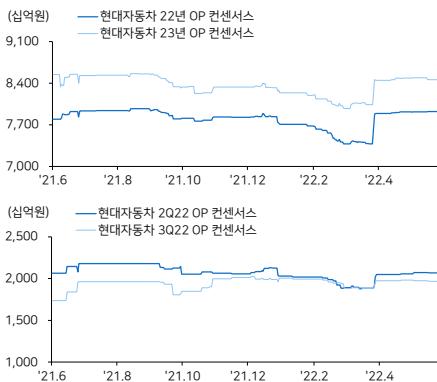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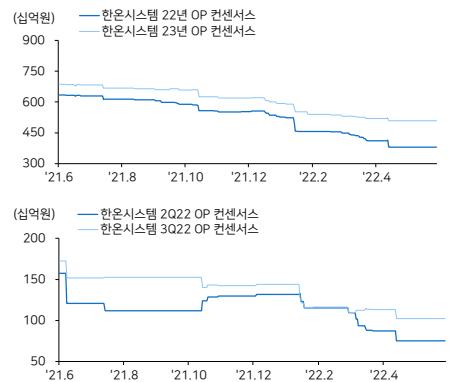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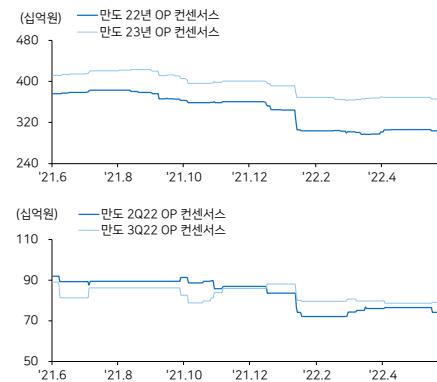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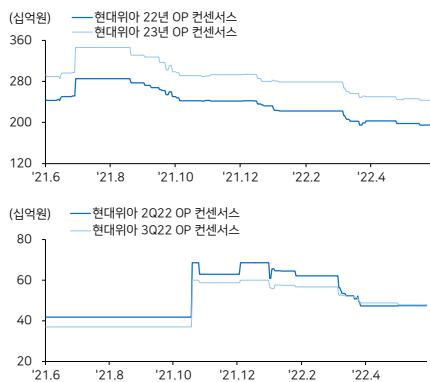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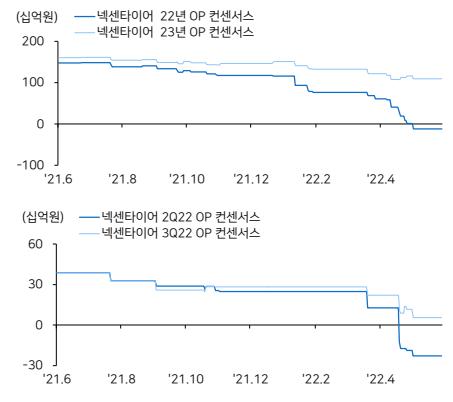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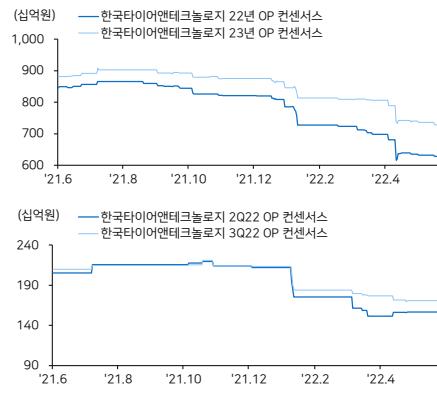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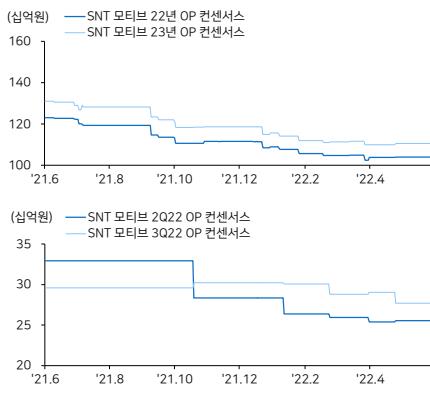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새 공장 짓는다…정의선의 결단 (한국경제)

현대차는 2023년 울산에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원공할 계획.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7 이후 모델과 2025년 이후 모든 신차를 EV로 출시할 예정인 제네시스 브랜드가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c9Vaz4>

게임같은 화면이 내 차에 펼쳐진다 (조선일보)

볼보자동차는 이달 초 애자일리化进程 및 협업을 발표, '언리얼 엔진'을 볼보차에 탑재하겠다고 밝힘. GM의 하며 SUV EV 에도 언리얼 엔진 기반 SW가 탑재. 이같은 현상의 이유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3D 그래픽으로 구현되기 때문.
<https://bit.ly/3P7jbFE>

Canoo stock doubles, company resurrected after Walmart orders up to 10,000 EVs (electrek)

월마트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 Zero 달성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Canoo의 4,5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수주 상승. 라이프스타일 배달 차량(LDV)도 포함되며, Q4 22 생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P29WGI>

V2X tech hindered by regulatory uncertainty, Alliance says (Automotive News)

제작 부록으로 인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환경 및 효율성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V2X 기술의 미국 배포가 지연되는 중. V2X 기술은 차량이 인프라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으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타 관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함.
<https://bit.ly/3P8ybD1>

현대차 '팰리세이드 시동 거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한겨레)

현대자동차가 더 뉴 팰리세이드의 시동 거짐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단, 시동 거짐 관련해 해당 현상을 겪었거나 우려되는 고객은 서비스 거점에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함.
<https://bit.ly/3P24ymJ>

高물가에 순정부품만 고집하라… 40% 값싼 '대체부품'도 살펴보시라 (조선일보)

순정부품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약 40% 저렴한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중. 인증 대체부품 자체를 모르거나, 인전이나 고장 우려로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 있으나 이같은 우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
<https://bit.ly/3AF1akM>

XPeng Robotics expects smart robots to enter households in next two years (CNEV Post)

XPeng Motors의 스마트로봇 제조부문 XPeng Robotics는 지난해 9월 로봇팔 출시에 이어 시리즈 A 펀딩으로 1억달러를 조달. 산업용 기업 가치는 대체로 많음. 놓는 2년내 스마트로봇의 가상 도입을 목표하는 중.
<https://bit.ly/3c3KD8t>

China's Geely launches electric pickup as urbanites embrace camping (Reuters)

중국 자동차 업체 Geely는 세로운 전기 픽업트럭 브랜드 RADAR와 신규 모델 R6을 공개. 1회 충전으로 약 600km 주행(NEDC)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증가하는 캠핑과 야외활동 수요를 겨냥하여 출시한 것으로 분석됨.
<https://reut.rs/3c9whD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설립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